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말라.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10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74호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

軍신행 책임진 법요집 30년 만에 개정된다

조계종 군종교구 · 국방부 11월 30일 봉정식 봉행

군포교 시스템 정비 출발선
전면 컬러 · 사진 등 현대화
용어풀이 넣어 이해 높여
전시법요 · 경전선집 개발도

법요집 보급 한계 해소
지참 문화 불교계는 없어
내년 3만2천권 보급 계획
"미래포교 일환, 관심을"



〈국군법요집〉 어떻게 만들어졌나?

국방부에 따르면 국군법요집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1968년 경 파병부대 내 현대적인 법회의 필요성으로 베트남 파병부대서 연구, 발간됐다. 당시 부대 상황에 맞게 사시불공 중심의 법회의식을 버리고 찬불가와 설법 중심으로 1시간 내 의식이 마무리 되도록 법요집을 구성했다. 파병 군법사들은 현지에서 등사기를 이용해 이 법요집을 만들어 썼으며 귀국 후 그 자료를 국내 군사찰에 배포하며 국군법요집 형식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후 이러한 간소화된 의식의 효율성이 알려지며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 설법 및 사홍서원 등 현재 한국불교 사찰의 법회의식이 구성되게 됐다.

60만 국군장병들의 법회를 책임지는 〈국군법요집〉이 30년 만에 전면개정돼 발간된다. 국방부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묵 혜자)는 11월 30일 제49회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국군법요집〉 전면개정판을 봉정하고 2018년부터 전국 군법당에 이를 배포한다.

이번 〈국군법요집〉 개정발간은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은 군포교시스템 정비의 첫 시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군법요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지금과 같은 판형을 유지해 왔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국군법요집〉 형태가 현대 장병들에게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추진됐다.

이에 2016년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남장 김갑영 군승법사와 군종교구 교육국(국장 지운)의 주도로 연구팀이 꾸려져 1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번 전면개정판은 먼저 우리말 법회의식을 중심에 두고 기존 한문의식문을 참고하도록 변화를 주었으며 전면 컬러에 사진과 디자인을 조화시켜 교리 등을 보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꾸며졌다. 특히 처음 불교를 접한 청년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춰 친절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각 의식이나 찬불가에 설명을 달고, 불교용어풀이 항목을 책 말미에 넣었다.

이번 법요집 개정발간으로 〈국군법요집〉 보급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요집 보급은 기독교 성경과 찬송가집과 함께 국방부의 종교의식집 발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연간 3~4000권 수준으로 군법당에서는 법요집 보급 확대 필요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전면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군종교구는 연간 2만 권 이상의 책자가 전국에 배포될 수 있도록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법요집 개발TF팀장인 지용 구윤호 군승법사는 "400여 군법당에 총 4만여 권이 넘는 국군법요집이 필요하다. 1월에 1만 6000권, 상반기 중 1만 6000권이 보급될 예정이다. 국군인쇄청에서 현재 제작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용 구윤호 법사는 "성경도 사실 충분한 양이 배포되진 못하고 있지만 워낙 개인이 지참하는 문화가 있어 부족하진 않다. 반면 불교는 여성 민간불자들이 독송용 경전을 지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회의식집 지참 문화가 없어 법요집 보급이 필수"라고 말했다.

일선 군법사들은 이번 국군법요집 발간에 거는 기대가 크다. KCTC과학화훈련단 여범 박상민 군승법사는 "현재 연대급에서는 보통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오며 PPT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법요집 의존도가 낮다. 하지만 GOP나 소초에서는 법요집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법요집은 두껍고, 현대식 법회 진행에는 효율성이 떨어졌다. 청년 장병들에게는 그림이나 사진이 익숙한데 글자로만 되어 있어서 집중도도 떨어졌다. 이번 법요집 발간은 법회 현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간 군포교 활동을 해온 이향옥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사무국장은 "그동안 군종교구서 법요집을 지원받아 군법당 법회시 활용했지만, 인기가 없었다. 오히려 인기가 많았던 것은 만화로 된 불교안내서였다. 이번 개정판은 사진 등이 활용된다니 기대된다"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법요집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

군종교구 측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 작업으로 법회의식 연구와 쇄신을 담은 법요의식집 및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종교구 교육국장 지운 스님은 "전투 중 시행되는 각종 불교의식을 정립한 '전시법요집' 및 청년 장병이 함께 공부할 만한 '국군 경전 선집', 출신 재적본사에 따른 다양한 의식을 담은 '기도의 식집' 등이 현재 연구 중인 상황"이라며 "군법회 현대화는 미래포교의 출발선이다. 불교포교 발전을 위해서도 불자들이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18일 미황사 일원에서 열린 해남 달마산 '달마고도' 개통식에 참가한 여행문화학교 '산책' 구성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여행문화학교 '산책'

땅끝 달마산에 명품 순례 탐방로 열렸다

해남군 18일 '달마고도' 개통… 총 17.74km 둘레길

옛 선인 걸었던 길 그대로 복원
미황사, 도솔암 등 만날 수 있어
'명품 순례길' 입소문 벌써 북적

해남 땅끝에 명품 순례 탐방로 '달마고도'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해남군은 11월 18일 해남 달마산 미황사(주지 금강) 일원에서 달마산 둘레길인 '달마고도' 개통식을 개최했다.

'천년의 세월을 품은 태고의 땅으로 낮달을 찾아 떠나는 구도의 길'을 주제로 개통된 달마고도는 미황사에서 시작해 큰바람재, 노시랑골, 몰고리재 등 달마산 주능선 전체를 아우르는 총 연장 17.74km의 걷기 여행길이다.

'달마고도'는 총 4구간으로 구성된다. 2.71km 거리의 1구간은 미황사에서 큰바람재에 이르는 길로 땅끝 천년 숲 옛길 노선과 연계돼 있다. 미황사까지 왕복할 수 있는 순환노선으로 암자터와 문수암터, 너덜겅, 산지습지, 수정굴 등을 거치는 완만한 구간이다.

2구간은 4.37km로 농바위, 문바위골을 거쳐 노시랑길로 이어지며, 소사나무 등 대규모 산림 군락지가 이어지며 달마산 동쪽의 땅끝 해안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다. 2구간에서는 떡갈나무 고목을 비롯해 농바위, 관음봉, 암자터, 미타혈, 금샘, 문바우골, 노시랑골 등이 위치해 있다.

3구간은 5.63km로 노시랑골에서 몰고리재로 이어지며, 노시랑골 옛길, 하숫골 옛길, 웃골재, 노간주 고목, 편백조림지, 웃골, 도시랑골 등 아름다운 경관의 골짜기가 이어진다.

몰고리재에서 미황사로 돌아오는 길인 4구간은 5.03km로 전 구간이 이미 조성돼 있는 땅끝 천년 숲 옛길과 겹치게 되며, 용굴과 도솔암, 편백숲, 암자터와 미황사 부도전 등을 순례할 수 있다.

전체 구간을 걷기 위해서는 6시간 가량이 소요되며, 구간별로 마을이나 거점으로 반환점이 이어져 일부만 걸어볼 수도 있다.

순례길 달마고도에 대해 해남군은 "달마고도 순례길 조성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 인력으로만 길을 닦아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했다"면서 "선인들이 걸었던 옛길을 복원해 달마산 곳곳에 산재한 역사문화자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써부터 명품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향후 달마고도 트레킹 가이드를 운영해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걷기 여행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포항 지진 성보문화재 피해 추가 확인

문화재청 11월 23일 발표… 용장계 3층석탑 피해도

지난 11월 15일 포항서 발생한 진도 5.4규모의 지진으로 인해 사찰 및 성보문화재 피해가 추가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영남지역에 소재한 문화재 총 1,220건(국가지정문화재 243건, 시도지정문화재 등 977건)에 대한 안전점검을 최종 마무리했다"면서 "확인 결과 8건의 추가 피해가 확인됐다"고 11월 23일 밝혔다.

이중 사찰 및 성보문화재 피해는 총 5건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주 남산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보물 제1935호)은 석탑축이 변위되는 피해를 입었다. 거동사 대웅전(도유형문화재 제137호)은 소로 부분 이완 및 창방 연결부위의 이격의 피해를, 보경사 서운암 후불탱화 및 신중탱화(시도유형문화재 제367호)의 보관 장소인 법당 기둥 3개가 균열이 가고 뒤틀리는 피해가 확인됐다.

또한, 기림사 약사전(문화재자료 제252호)는 지진으로 인해 벽체 균열이 생겼으며, 경주 남산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문화재자료 제600호)은 3층 옥개석 및 노반이 동북 방향으로 이동됐다.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적광전(보물 제1868호) 등 15건은 긴급보수비 등 국비지원을 통해 조속히 복구 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